

[KBS노동조합 보도자료]

급박한 재난보도에 왜 중계 장소를 속이나?

천여 명의 이재민을 낳은 강원지역 초대형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4일 밤, 정규방송을 그대로 내보내 골든타임을 놓친 KBS뉴스가 뒤늦게 특보를 시작했다. 소방청에서 최고수준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지 1시간가량 뒤인 11시25분,

그런데 ‘강원 산불 1명 사망’이라는 타이틀의 뉴스 중계에서 심각한 취재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강릉방송국에서 중계보도를 하는데 고성 산불 현장 또는 고성에서 중계보도를 하는 것처럼 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11일 현재도 인터넷에 노출돼있는 방송 보도 기사 내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88127>)

[앵커]

오늘 7시쯤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0 기자, 인명피해가 확인됐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저희 KBS가 확인한 결과 오늘 산불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59살 남성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고성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불은 저녁 7시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초속 20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밤인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어 헬기 투입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고성군 원암리와 성천리,신평리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

러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인근 속초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고성지역에서 인접한 속초지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바람꽃마을 인근 연립주택 주민과 한화 콘도, 장천마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영랑동과 속초고등학교 일대 주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곳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재 까지 파악된 피해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현장 상황이 워낙 급박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곳곳이 불에 타는 모습이 목격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밤새 산불 저지선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 뒤 날이 밝자마자 헬기를 투입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 뉴스 000입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취재기자가 분명히 KBS 강릉방송국 울타리를 배경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리포트 중간 중간 시청자 제보를 받은 산불 현장 영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취재기자 자체는 강릉방송국 주위에서 중계차를 연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KBS 특보에서 앵커는 마치 산불 현장에 나가있는 것처럼 취재기자를 불렀고, 취재기자 역시 클로징 멘트에서 고성에 있다고 했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 현장에 있다고 속인 것은 명백히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노사공방위(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이 점을 지적하고 사측에 재발방지와 대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KBS노동조합은 해당 취재기자가 재난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 재난현장에 있다고 멘트한 것은 기사를 급하게 쓰면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뒷선에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부노조도 당시 노사공방위에서 해당 취재기자가 다른 장소에 있다고 한 것은 경력이 얼마 안 돼 생긴 단순 실수라고 사측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KBS 노조는 이런 식으로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는 지금을 볼 때 세월호 오보로 크게 위상이 추락했던 2014년 KBS의 보도행태와 크게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조만간 사측에 노사간담회를 요구해 강원 산불 재난 특보 과

정에 있었던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다.

2019. 4. 11.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